일반논문

유신체제기,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영재
한양대학교

〈논문요약〉

1970년대 유신체제는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단절의 시기', '암흑의 시기'로 불린다. 1960년 4·19 혁명의 열기에 힘입어 결성된 '교원노조'가 '5·16 쿠데타'로 와해된 이후 1980년대 초반 'Y중등교사협의회'(1982) 결성까지 약 20년 동안의 시기가 그 암흑의 시기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신시대 광주·전남 교육운동의 흐름은 기존의 양상과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양성우 시인의 「겨울공화국」 발표, 전남대 교수 11인의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등은 적극적인 반유신 투쟁의 전형이었으며,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 교육운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시기 광주전남 교육운동 영역에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교육운동의 조직적·실천적 양상이 전개된

* 이 논문은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연구」 중 '교육운동분야'의 구술 및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구체적인 심사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다. 그동안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 없기 때문에, 이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교육민주화운동사적 맥락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유신체제기 광주·전남의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독특한 형태로 제기된 조직적·실천적 양상을 발굴하고, 교육민주화운동사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 주요어: 우리의 교육지표, 민주화, 교육운동, 삼봉조합, 양서협동조합

1. 시작하며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혁명공약 제1조)"는 선언으로 출발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사회 전반을 휘감고 획일적으로 관철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혁명공약 제1조인 '반공'과 더불어 '조국근대화'를 상징적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 '조국근대화'를 뒷받침하는 양대 축은 '사회개혁'과 '인간개조'로 집약되었다. 이 '사회개혁'과 '인간개조' 논리가 직접적으로 관통한 대표적 영역이 교육영역이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개혁'과 '인간개조'를 견인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다. 교육영역에 대한 통제는 교육내용은 물론이고, 교육현장의 교사들까지 강권하여 정치적 선전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었다.[1)]

제3공화국은 반공국시와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의 전 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을 강화했다. 교육정책에서도 노골적인 국가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통제적 교육정책은 사회발전·근대화교육정책을 명분으로 한 「국민교육헌장」의 일방적 강요로 나타났다.[2)] 1968년 12월 5일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을 두고 박정희 정부는 '국가주의의 왕조적 교육칙어'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민족관, 생활윤리를 규정해주고, 제2경제 실천을 가능케 한 교육장전"이라고 자화자찬했다(전교조·민교협·강사협 1989, 56-165).

1972년 10월 유신헌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약 한 달 후인 12월 27일 유신체제의 공포와 함께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교육이념인 「국민교육헌장」은 유신의 이념으로 포장되었고, 유신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써 한층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교육이념이 유신이념의 강력한 선전도구였던 것이다. 교육현장에 직접 개입한 국가가 교육자를 길들이고, 수단화하는 정도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일례로 유신 선포를 몇 개월 앞둔 1972년 3월 24일 유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

1) 교사들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활용한 대표적인 경우는 1968년 3선 개헌의 선전에 동원한 경우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권력 연장을 위해 교사들을 동원하여 3선 개헌의 정당성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선전하도록 강제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선생들보고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학부형들에게 3선 개헌에 대한 의견을 ○, ×로 받아오라고 했다. 이에 많은 선생님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윤광장 구술 1990, 146).

2) 이 헌장은 1968년 6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정계, 정부대표 등 사회 전부문의 대표 26명이 헌장기초위원으로 임명되고 48명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반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성안되었다. 헌장초안은 거의 박종홍, 이인기, 유형진 등에 의하여 작성되어 8차례의 초안심사를 거쳐서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대구에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이 대회의 사전 예행연습에서 문교부 장관이 주관하여 대학총장들까지 박수치는 연습을 할 정도였다(성래운 1985, 303).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 총장들이 유신선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박수부대로 동원된 것이다. 유신교육의 첫해인 1973년 박 대통령은 아예 "'10월 유신의 정신'이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그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새마을 교육의 추진과 함께 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유신의 정신에 맞추어 각각 2월 14일, 8월 31일에 개정·공포하였다. 마치 농촌진흥운동의 깃발 아래 학생들을 학교 부근 논밭으로 동원하던 일제 말기와 유사한 방식이었다.

'5·16 쿠데타'로 교원노조가 해체된 이후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운동'[3]이라는 말을 언급조차 할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교원노조 해체 이후 새로운 교사운동의 생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으로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4]하고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3공화국 헌법과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교원노조를 불허하고, 교사의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다. 관변단체인 '대한교련'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지정했고, 근무성적 평정규정을 도입하여 교사를 감시하고, 국정 검

3) '교육민주화운동', '교육운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교육민주화'란 의미상 교육영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주체로 한 민주화운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된 유신체제에서 교원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은 곧 반독재투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교육현장의 민주화 요구는 곧 사회민주화 투쟁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민주화'라는 개념어로 이 양면성을 포괄해보고자 했다. 반면, '교육민주화'가 교육현장의 교사·교수들을 주체로 하는 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교육운동'은 교사들의 노조나 단체 결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 요구 등 교육영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4) 제헌헌법 이래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이전까지는 헌법상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4·19 이후 한국교원노조는 합법적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부는 1962년 개헌과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했다(김현준 1998, 62).

인정 교과서 제도를 통해 교육내용을 통제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학통제권을 장악했다(전교조·민교협·강사협 1989, 461). 말 그대로 교육운동의 암흑기였다.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침묵이 강요되었다.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 이후 침체되어 있던 학생운동이 1971년 3월 '교련철폐 투쟁'과 4월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의 결성을 통해 반독재투쟁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자마자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10월 15일)을 발동하고, 서울 시내 7개 대학에 군대를 동원해 위수군을 진주시키고, 8개 대학에 휴학령을 내렸다(KNCC 인권위원회 1987, 274-293).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를 갈구하는 교사들의 열정은 학교 현장에서 비공개 소모임 형태로 잠복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5] 1970년대 말까지 고립·분산적으로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교사들의 비공개 소모임은 김지하 시인의 「오적」이나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 양성우 시인의 「겨울 공화국」 등을 읽고, 토론하거나 암울한 정국에 대한 의견을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모임조차도 공안당국에 발각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로나마 모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결단을 요

5) 교육현장의 일각에서 반공교육, 식민지 노예교육이 판을 치던 학교현장에서 반독재투쟁의 필요성을 자각한 교사들과 교원노조의 주요 인사들이 비공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확인된 당시 소모임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9 교원노조' 창립교원들인 강기철(4·19 교원노조대표), 박웅철(4·19 교원노조 초등위원장), 김문심(4·19 교원노조 경북연합위원장), 김남식(함석헌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계훈제(재야 운동가) 등이 소위 응암동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1981~1984년 교단 경험을 토대로 「어린 종달새의 죽음」을 일간지에 기고해 수상했던 이치석 교사도 이 모임에 결합했던 교사였다(이영재 2011, 67).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하는 것이었다. 흔히 이 시기를 교육운동사에서 '단절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1960년 4·19 혁명의 열기에 힘입어 결성된 '교원노조'[6]가 '5·16 쿠데타'로 와해된 이후 약 20년 동안 교육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움직임은 고사하고, 그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운동사를 다룬 대부분의 기록[7]에서 이 시기는 상당히 짧게 다루어지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 암흑기가 끝나고 교육민주화운동이 새롭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1982년 'Y 중등교사협의회' 결성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은 이 유신체제기에 상당히 독특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성우 시인의 「겨울공화국」 발표, 전남대 교수 11인의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촉발된 광주·전남 교육주체들의 반독재민주화 투쟁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유신체제기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에 새로운 실천적 양상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작용했다. 1960년 교원노조 시기를 교육민주화운동의 1세대라고 한다면, 이 1세대의 흐름이 단절된 유신체제기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1980년대 공개적 교육민주화운동

---

6) '4월 혁명'이 어린 학생들의 참여와 희생 속에 이루어지자 '정치권력의 도구'라는 극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던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교사들은 의로운 학생들의 피로 쟁취한 '4월 혁명'의 성과를 교사들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교육자적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4월 혁명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교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시도들이 성난 파도와 같이 일어났다. 그 첫 포문을 연 것은 대구·경북지역의 교사들이었다. 1960년 7월 17일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총 82개 교원노조가 결성되었고, 조합원 수는 1만 9,883명이었다. 교원노조 조합원은 전국 전체 교원수의 22% 정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수를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이 8,100여 명, 경남이 8,000여 명, 서울은 200여 명, 충남은 900여 명, 전북은 370여 명, 전남은 230여 명, 제주는 170여 명 정도였다. 이 규모는 당시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등 전체 교원수가 10만 명이 채 안 됐던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474 참조).

7) 대표적인 교육운동사로는 (전교조 1990; 전교조 2011)을 들 수 있다.

의 시대를 예비하는 인적·조직적 흐름이 실체화되고 있었다. 특히 이 글에서는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에 등장한 '삼봉조합'이라는 조직적 결사와 교육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양서협동조합' 활동을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동안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이 교육민주화운동사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된 적은 거의 없었다.[8]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의 내용과 주체를 조명하는 것은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민주화운동사 차원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위 암흑기라 평가하는 유신체제 동안 독특한 실천적 양상을 보여주는 드문 교사운동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유신체제의 폭압을 뚫고 일련의 실천적 흐름을 만들어낸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을 교육민주화운동사적 맥락에서 발굴하고, 그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유신의 폭압과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

1) 겨울공화국

1970년대 중반 유신의 절정기에 교수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학생들의 동태를 보고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초를 서야 했다.

---

8) '삼봉조합'은 『참교육 한길로』에서 임추섭 선생의 구술로 일부 내용이 소개(전교조 2011, 83)된 적이 있으나 교육민주화운동사의 맥락에서 그 역할과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는 못했다. '양서협동조합'의 경우 차성환(2004)의 연구로 그 실체가 정리되었지만 교육민주화운동사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조명된 것은 아니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74년 '민청학련'과 '인혁당'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사형판결과 무기징역 선고가 난무하는 등 정국은 말 그대로 한겨울의 살얼음판이었다. 정치권력의 명운을 걸고 덤벼드는 유신체제의 폭압에 교사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9] 그런데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던 혹한의 유신 동토(凍土)에 광주의 한 국어교사가 커다란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중앙여고의 양성우 교사가 1975년 2월 12일 광주 YWCA에서 개최된 '전남도 출신 민청학련 관련자 석방 환영회 및 광주 YWCA 구국기도회'에서 자작시 「겨울공화국」을 통해 정면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한 것이다. 양성우 교사는 유신체제를 '겨울'과 '한밤중'으로 묘사하고, '총', '칼', '군홧발'을 등장시켜 군부 쿠데타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눈을 뜨면서
뜨겁게 뜨겁게 숨쉬는 것을 보았는가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가라앉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중략)
누군가의 발밑에 까무러쳐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죽어 가는 것을 보았는가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홧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대는

9) "교단에서 교실도 마찬가지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역사의 정당성을 부르짖으면 그 놈은 간첩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시대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회나 역사 선생님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야"(윤광장 구술 2006, 180).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
논과 밭이 얼어붙는 겨울 한때를
여보게 우리들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중략)

묶인 팔다리도 봄을 기다리며
한사코 온몸을 버둥거려야
하지 않은가
여보게

_양성우, 「겨울공화국」 중

2월 22일 광주중앙여고는 양성우 교사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양 교사가 불응하자 교내징계위에 회부하였다. 이러한 학교 측의 반응과 달리 선생님의 양심과 용기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광주중앙여고 2학년 3반 신 모, 4반 김 모, 2반 이 모양 등 학생 10여 명이 푼돈을 모아 「동아일보」 2월 20일 자 광고란에 "가라! 껍데기는 가라! 광주중앙여고 학생들" 이라는 광고를 냈다. 당시 여고생들의 신문광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혹시 선생님은 교사노예가 아니신지요(?) 광주 J여자고교 대다수 학생"이라는 대담한 내용의 광고를 연이어 냈다(동아일보 1975/02/27).

「겨울공화국」의 군부독재 비판이 광주·전남을 넘어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월 26일 밤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대표간사 고은 시인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광주로 내려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표를 강요받은 양 교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협 전남지부도 이날 광주 YMCA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양 교사 문제에 대한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동아일보 1975/02/27). 이러한 재야 및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 교사가 4월 12일 파면(동아일보 1975/04/14)되자, 광주중앙여고 2, 3학년 학생 7백여 명이 양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파면에 항의했다. 양 교사는 학교 측의 부당한 '파면'[10] 조치에 굴하지 않고, 4월 12일 광주 YMCA 무덕관에서 약 1천5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보란 듯이 다시 「겨울공화국」을 낭독했다. 이날 시국강연회는 "정부는 막강한 힘을 성직자와 민주인사 탄압에 악용하지 말고 국가안전과 국민복지에 사용하라"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민주회복국민회의 전남지부의 "① 유신헌법철회, ② 언론자유보장, ③ 고문통치 중지, ④ 기본인권보장, ⑤ 종교 학원자유보장, ⑥ 국가안보 빙자하여 정권 연장말라" 등 11개항의 성명을 박수로 받아들였다(동아일보 1975/04/14).

양 교사는 「겨울공화국」 낭송 사건과 더불어 「노예수첩」이라는 장편시를 일본잡지 『세카이』 1976년 6월호에 게재하고, 1977년 5월 한국의 현실을 주제로 한 「우리는 열 번이고 책을 던졌다」를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결국 1977년 6월 13일 구속되었다. 양 교사가 수감된 동안 고은과 조태일에 의해 그의 시집 『겨울공화국』이 출판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9, 239). 이 『겨울공화국』은 1970년대 후반 교육현장의 뜻 있는 많은 교사들의 소모임, 토론 모임 등에서 필수

10) 4월 12일 양 교사에게 통보된 징계위의 파면 결의서는 문제된 "겨울공화국"의 낭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① 야간 숙직자에게 만취행위, 수위를 구타했다. ② 여교사, 여학생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 ③ 교지에 동료교사 및 감독청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④ 데모학생을 칭찬하고 사직권고를 언론기관에 알려 보도케 했다는 등 8개항을 이유로 지적했다(동아일보 1975/04/15).

교재로 삼을 만큼 교육운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양성우 교사의 반유신정신은 단발마로 그치지 않고, 광주·전남 교육현장에 점차 반유신 투쟁의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2)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1975년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전국의 고교와 대학은 학도호국단으로 편성되어 학내 군사교육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폭압통치는 자제력을 잃어버렸고 반공 안보논리의 상징조작에 광분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 박정희 정권은 국회에서 사실상의 전시입법인 '사회안전법안', '방위세법안', '민방위기본법안,' 그리고 교수재임용을 제한한 '교육관계법안' 등 네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신중섭 2008, 134). '교육관계법'의 국회 통과로 교수재임용제가 신설된 것은 대학사회에 엄청난 탄압으로 다가왔다. 문교부가 유신통치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교수들을 합법적으로 학내에서 추방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이 교수재임용제로 인해 1976년 새학기에는 전국 98개 대학에서 416명의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강제로 교단을 떠나야 했다. 대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노골화되어 아예 전경과 경찰기동대, 사복형사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대학에 상주하면서 일명 '경비일보(학내에 상주하는 기관원들의 상황보고 일지)'를 작성해서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학생 수까지 시시콜콜 치안당국에 보고할 정도였다.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각급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교실마다 일제히 대통령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국민교육헌장'이 내걸릴 정도로 유신정권의 선전이 강권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관계법' 등에 의해 해직당한 교수 중 13명이 1977년 12월 2일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하였다.[11] '민주교육선언'은 대학의 자율성 상실과 학문의 자유 부재를 개탄하며, 대학의 획일화와 어용화를 강력히 비판하는 선언이었다. 또한 학도호국단을 통한 대학병영화, 대학 경영자들의 교수재임용제도 악용 등을 지적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9, 241-242). 학원에 대한 권력 당국의 감시와 탄압은 갈수록 노골화, 폭력화되어 갔다. 진실을 말하는 교수들은 교단에서 내쫓기고 어용화된 교수들만이 판을 쳤다. 연구 활동의 성과보다는 행정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충성도에 의해 교수로서의 자격이 평가되고 자리가 주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판과 창조, 자율과 민주적인 교육풍토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전남대학교도 교수와 학생들이 권력 당국과 정보원들의 엄혹한 감시 아래에서 복종과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신일섭 2007).

'민주교육선언' 이후 교육현장에 대한 폭압적 탄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모색이 이어졌다. 1978년 봄 해직교수협의회 대표인 연세대 성내운, 서울대 안병직 교수 등과 전남대 송기숙, 서울대 백낙청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유신체제의 정신적 이정표 역할을 하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국 대학교수들 서명을 받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송기숙 교수가 전남대 교수 11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서울의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상경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서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막상 선언을 실행해야 할 국면에 이르자 선언의 대표자를 맡을 사람이 나서지 않았고, 학교별로 별도로 선언문을 채택하겠다는 학교가 많았던 것이

11)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한 13명은 김동길(전 연세대), 김용준(전 서울대), 김윤수(전 이화여대), 김찬국(전 연세대), 남정길(전 전북대), 노명식(전 경희대), 백낙청(전 서울대), 성내운(전 연세대), 안병무(전 한신대), 염무웅(전 덕성여대), 이계준(전 연세대), 이우정(전 서울여대), 한완상(전 서울대) 등이다.

다. 선언문 채택이 지연되자 송 교수는 6월 26일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이튿날인 27일 광주로 급히 내려 온 성내운 교수가 박정희 정권의 정보수집능력을 볼 때 전남대 주동자 몇 명이 '제2의 최종길 교수'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남대 11명 교수의 이름이 서명된 선언문을 AP통신, 아사히 등 해외 언론사에 보내고 서울대를 비롯해 몇몇 대학교수들에게도 우송했다는 말을 전했다(송기숙 구술 2006, 101-108).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가 전남대 11명 교수의 이름으로 공개된 것이다. 바로 다음 날 중앙정보부는 송기숙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전남대 교수들을 연행했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역사교육학과 김두진, 홍승기 교수, 영문학과 명노근, 김정수, 배영남 교수, 불문과 김현곤 교수, 국문과 송기숙 교수, 사학과 이석연, 이홍길 교수, 철학과 안진오 교수, 법학과 이방기 교수 등 11명[12]의 교수들이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선언문을 채택한 것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였다.

학원병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정권에 항거하고,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주장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이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군부 권위주의 통치 시기 큰 파장을 일으킨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이렇게 촉발되었고, 외신을 통해 국내외에 타전된 내용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투옥과 해직을 무릅쓰고 전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의 골자는 인간다운 교육을 포기한 암담한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양심과 양식에 어긋난 대학교육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

12) 김동원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는 자신을 포함하여 12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부모님과 부모님 관련 일로 인해 연좌제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서명자 명단에서 김동원 교수를 제외하였다고 한다. 김동원 교수를 제외한 11명의 교수들에 대해 소위 사커팀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김동원 구술 2006, 23 이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학인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계 안팎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우리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 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제정경위 및 선포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 칙어를 연상케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강조되고 있는 형태의 애국애족교육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날의 세계역사 속에서 한때 흥하는 듯 하다가 망해 버린 국가주의 교육사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부국강병과 낡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조상의 빛난 얼을 찾는 것은 잘못이며, 민주주의에 굳건히 바탕을 두지 않은 민족중흥의 구호는 전체주의와 복고주의의 도구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권력 순응을 조장하고 정의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우리의 교육지표' 중).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우려했던 대로 박정희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교수들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남대학교와 광주 전역에 퍼졌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충격이었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에게 양심 있는 교수, 존경할만한 스승이 있구나 하는 감격이었고, 다른 하나는 양심의 소리마저 탄압하는 당국의 처사에 대한 새삼스런 분노와 스승의 신변에 대한 깊은 우려였다. 11명의 교수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일 먼저 행동에 들어간 것은 전남대 기독학생회(KSCF)였다. 이영송과 안길정, 노준현 등이 중심이 되었다. 28일 오후 1시 30분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2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행된 교수

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그날 밤 7시 광주YWCA 강당에서는 연행된 전남대 교수들과 학원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우리의 교육지표'가 낭독·배포되었다(신일섭 2006, 333). 공대 2학년이던 노준현의 주도로 학내에서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6월 29일 약 7백여 명의 학생들이 중앙도서관 2, 3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바로 다음 날 무자비한 강제해산이 이루어졌고, 학교에는 7월 5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다. 학생들은 가두에서 격렬하게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고, 연이은 시위로 약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다.[13] 7월 3일에는 '6·27 민주교육선언'과 '6·29 전대 학생시위'를 지지하는 조선대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14] 이 시위로 전남대생 2백여 명이 연행되고, 박기순, 신영일 등 8명이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고, 남학생 80여 명, 여학생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영재 2015, 43).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서명 교수 11명이 전원 연행되고, 학생들의 항의시위에 박정희 정권이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자 광주·전남의 민주화운동 역량이 총동원되다시피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홍남순, 이기홍, 지익표 변호사 등으로 대대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법정투쟁도 전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자유실천문인협회' 등 재야 시민단체의 전국적인 후원도 이루어져 구속된 교수들과 학생들의 법정

---

13) 시위를 주도한 전남대생 김선출(사회 3), 김윤기(법학 3), 노준현(화공 2), 문승훈(국교 2), 안길정(영문 2), 박병기(철학 4), 박몽구(문리대 1), 박현옥(영문 4), 신일섭(사학 3), 이영송(국문 3), 이택(철학 3), 최동열(법학 1), 한동철(무역 4), 정용화(인문대 1) 등과 광주 YWCA 김경천 간사, 인쇄업자 정호철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이영재 2015, 42).

14) 이 시위로 조선대생 양희승(정외 2), 박형중(전기공학 1), 김용철(법학 2), 유재도(금속공학 1) 등 4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고, 제적되었다(이영재 2015, 43).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투쟁을 성원하였다. 공판이 열린 날에는 서울과 전국에서 민주인사들이 광주로 몰려와 법정을 가득 메웠다. 교육지표 사건은 이미 해외 언론에 공표된 사건이어서 정부로서도 방청을 제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며, 박정희 유신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15] 광주·전남 사회운동 단체들은 교육지표 사건 구속자들을 위한 활동에 대거 참여하였다. 특히 교육지표사건을 계기로 해서 1978년 11월 YWCA에서 구속자 부인과 단체 활동가 등 20여 명의 여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송백회'가 구속자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16] 송백회 회원들은 겨울이 오기 전까지 털양말 170켤레를 짜고, 영치금과 책을 모아 수감된 교수·학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방청객을 안내하여 법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어둠의 정적을 깬 교육지표 사건은 유신독재체제 아래 참담하기만 했던 교육현장에서 강권적 폭압에 억압받던 양심적 교수들과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 광주·전남 사회운동 진영이 연대하여 죽음과 같은 정적을 깨고 참다운 민주교육, 학원과 사회 민주화 쟁취를 선언한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

15) 나는 그때 상당히 화려한 재판을 받았지. 그래 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것이 말하자면 타격이 컸어요, 저 국제여론을 타버리니까. 그래 갖고 박정희가 얼마나 화가 나버렸든지 사흘 동안 밑에서 장관들이 결재를 받으러 못 갔대요. 나중에 얘기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었어. 그런데 그때 내가 병신이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때 안기부장이 그 전에 김형욱 때, 김형욱 거기는 뭐 들어가면 완전히 반병신을 만들어버렸고, 그때 김재규로 바뀌어졌을 때야. 김재규로 바꿔진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맞어 거의 병신될 줄 알았지. 그런데 안 때리더라고. 이상하다? 안 때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도 학생들이 일어난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대? 학생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안기부가 사흘 동안인가 이틀 동안인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려버려 자기들끼리 그냥. 야~ 이 자식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나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송기숙 구술 2006, 110)

16) 교육지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송백회는 나중에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도청 지도부를 위해 끼니를 제공하는 등 광주·전남 사회운동에서 핵심적인 운동단체로 성장했다.

3. 조직적 교육운동의 맹아: 삼봉조합

1970년대 초반 반독재투쟁 및 유신반대 투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교단에 들어오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학교 현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자생적인 비공개 교사 소모임 활동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기 광주에서 4·19 교원노조의 정신을 이으려는 과감한 시도가 나타났다. 1977년 대동고 교사 박석무를 중심으로 일명 '삼봉조합'이라는 이름의 교사모임이 태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임의 참여자들은 박석무, 박행삼, 양성우, 송문재, 임추섭, 윤광장, 정규철, 김준태, 정해직 등 20여 명의 교사들이었으며, 조금씩 시차를 두고 결사했다.[17] '삼봉조합'은 유신시대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랬듯이 버젓이 결성식을 갖거나 출범선언을 할 수 없었다. 삼봉조합의 결성은 공안당국에 포착되지 않기 위하여 은밀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엄혹한 정세 속에서 삼봉조합 성원들은 "주말이면 시내에서 못 있고 주로 무등산 어디로 올라가고 돼지고기 삼겹살 떠가지고 와서 거기서 구워먹으면서 소주 마시면서 밤새도록 토론"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정권 아래 있던 양심적 교사들의 울분을 달랬다고 한다(박석무 구술 2013, 27).

모임 명칭을 자칭 '삼봉조합'이라고 부르게 된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당시 유행하던 '삼봉'이라는 화투놀이의 명칭을 빌려온 것은 독

---

17) 전교조의 『참교육 한길로』에는 삼봉조합 회원이 28명(양성우, 박행삼, 윤광장, 정규철, 김준태, 송문재, 임추섭, 정해숙, 박형민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교육운동사」 자료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모임의 참여자는 약 20여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8명으로 제시된 것은 정해숙 선생의 경우와 같이 광주·전남 교육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사들을 삼봉조합 회원인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해숙 선생의 경우 당시 회원은 아니었지만 삼봉조합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권력의 감시를 피하고 여차하면 알리바이를 대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장 연장자였던 박행삼 선생이 삼봉조합의 '조합장'을 맡았다. '삼봉'이라는 명칭의 최초 제안자는 박석무 선생이었다. "옥고를 치른 바 있는 박석무가 공안통치의 속성을 잘 알아 먼저 '삼봉'을 치는 모임 제안을 했다"고 한다(박행삼 구술 2014). 민주화를 염원했던 약 20여 명의 교사들이 '삼봉'이라는 화투놀이로 이름을 붙이고 본격적인 모임에 앞서 당시 유행하던 '삼봉' 화투를 치면서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결사한 것이다. 굳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당시 정국은 20여 명의 뜻 있는 교사들이 정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정식으로 형식을 갖추고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는 대학가의 학생운동 진영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소위 '언더' 조직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엄혹한 상황이었다. '삼봉'이라고 조직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에 대해 윤광장 선생도 "중앙정보부의 감시가 심해 조직이름을 삼봉조합이라고 명명했다"고 기억한다. 전화로 삼봉 한번 치자고 하는 것이 모임을 하자는 제안이었다(윤광장 구술 1990, 147).

> 이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규약이나 규정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조직체를 만든다는 것은 저네들(경찰들) 안테나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저 우리는 만나면 삼봉을 치자. 지금은 고도리지만 그때는 삼봉이 주였죠. 고도리가 안 나왔으니까. 삼봉 회장으로는 제일 연장자인 박행삼 선생님으로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모임을 할라면 어이 삼봉 한번 칩시다, 삼봉 한번 치세, 그 말이 곧 우리 만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나서 간단히 얘기하고 반드시 삼봉을 쳤어요. 꼭꼭 삼봉을 쳐.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경찰에 걸리면) 우리는 만나서 삼봉쳤다. 두 팀도 치고 사람이 많아서 치지 못한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했다고 말하기 좋잖아요 … 삼봉 친 장소는 식당도 되고 주로 인적이 드믄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사람들이 안 갔던 소쇄원, 그 다음에 여름 같으면 환벽당, 취가정 이런 정자들, 그리고 지금은 물에 잠겨 있지만 적벽 화순 온천 가는데, 천렵 간다고 해서 다리 밑에서 가서 고기도 잡아서 끓여 먹고 그랬어요(윤광장 구술 2006, 181-182).

이처럼 1970년대 후반 교육민주화운동의 암흑기에 20여 명의 교사들이 '교원노조'의 뜻을 계승하고, 교사들을 주체로 한 민주화운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교육민주화운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유신체제기 동안 교육민주화운동사는 그동안 별다른 흐름을 포착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비록 느슨한 형태로 유지되었지만, 유신말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 교사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삼봉조합'은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민주화운동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의 암흑기 이후 즉각적인 공개적 교육민주화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의 실체가 삼봉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삼봉조합'은 1980년대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임은 정기적이라기보다 무슨 사안이 생기고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면 만나서 우리 교육 문제 걱정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서 쓰겠느냐 등등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자꾸 회합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운동의 전신으로 보면 돼요(윤광장 구술 2006, 182).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삼봉조합의 조합장을 맡았던 박행삼 선생 역시 광주·전남에서 "사실상 이 모임이 민주교사협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전교조의 뿌리라고 보면 된다"고 평가한다(박행삼 구술 2014). 삼봉조합의 구성원들은 비공개 모임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의 사회민주화운동 진영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본격적인 반유신 투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갔다. 실제 이 삼봉조합의 성원들은 자연스럽게 박석무 선생이 주도하던 광주 엠네스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 이 삼봉조합은 1974년 민청학련이 터지고 교육현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깨어 있는 교사들의 친불친으로 모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각 사립학교, 공립학교에서 거의 이십여 명이 되는 선생님들이 뜻을 같이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엠네스티도 같이 하고, 79년에 양서협동조합도 만들었던 그런 팀입니다(윤광장 구술 2006, 181).

아직 대학의 교수들이 엠네스티 활동에 결합하기 이전 정규철, 임추섭 선생 등 교육현장에 있던 삼봉조합 교사들이 엠네스티 성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새로운 실험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양서협동조합' 활동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다. 삼봉조합의 주요 구성원들이 엠네스티 활동과 더불어 양서협동조합의 핵심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실천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 삼봉조합 그룹은 '4·19'의 경험을 공유하는 '4·19세대'로부터 1970년대를 전후한 유신세대가 결합해 있었다. 가장 연장자인 조합장 박행삼 선생은 1959년 전남대 법대에 입학한 '4월 혁명' 세대였고, 대부분의 성원들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대학을 다니며 유신을 경험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대동고(윤광장, 박행삼, 박석무),

중앙여고(송문재, 임추섭) 등 재직하는 학교별로 직접적 연계 고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삼봉조합'이라는 조직적 틀로 학교간 연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교사로 재직하면서 1975년 '겨울공화국' 사건과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을 경험했으며,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유신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결사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유신투쟁의 실천적 양상은 '엠네스티' 활동과 '양서협동조합' 활동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5·18 항쟁' 시 박석무, 윤광장, 박행삼, 김준태, 정해직 선생 등 다수의 삼봉조합 성원들이 항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내적 연계를 바탕으로 보건대, 삼봉조합의 성원들은 교육민주화운동을 통해 반유신투쟁을 위한 실천을 도모하고, '5·18'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함으로써 1980년대 초반부터 교단에 진출하는 '5·18세대', '민주화세대'들의 직접적 선배그룹으로서 정신적 구심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삼봉 그룹의 성원들이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 세대들인 후배 그룹들이 대중적 교육민주화운동을 전개할 때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했다. 삼봉조합의 당사자들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다. 박석무 선생은 삼봉조합이 '교사협의회' 등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광주·전남의 교육운동이 삼봉조합에서 출발했다고 규정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Y교사운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이제 전교협으로 … 89년에 전교조로 넘어가게 되지(박석무 구술 2013, 28)." 실제 전교협 광주지부장을 맡은 것이 삼봉조합 성원이었던 송문재(중앙여고) 선생이었고, 윤광장 선생은 전교협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삼봉조합 성원들은 교육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아직 본격적 궤도에 오르기 전에, 군부독재의 엄혹한 민주화운동 탄압 국면에서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교육민주화의 새로운 실천: 양서협동조합

삼봉조합의 교사들은 정부의 눈길을 피해 회합하거나 민주화의 열망을 토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1978년 6월 27일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 발생하자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양서협동조합'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79년 교사, 지식인, 민주화운동가, 학생들이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광주양서협동조합' 운동으로 나타났다. '양서협동조합(이하 '양협')'은 1978년 4월 5일[18] 부산에서 결성된 이후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사이에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양협이 있었던 지역은 부산을 중심으로 마산, 대구, 울산 등 영남의 4개 도시, 그리고 서울, 수원 등 수도권의 2개 도시와 광주 등이다. 1978년 11월 창립[19]된 '광주양서협동조합(이하 광주양협)'은 다른 지역 양협과 달리 광주·전남 교육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운동진영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광주양협의 산파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장두석이었다.[20] 1978

---

18) 익명의 심사평에 따르면, 이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 양협 결성일은 4월 2일이다.

19) 광주 양서협동조합의 자료들이 5·18 민중항쟁 당시 인멸되어 광주양협의 창립시기와 관련하여 다소 혼선이 있다. 차성환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윤광장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은 1979년 봄이다. 반면, 고정석은 1979년 3~4월경으로 기억하였다(차성환 2004, 165).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시기는 광주양협이 광주YWCA 2층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된 때다. 광주양협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8년 3월경 장두석의 집에서였다. 그 후 YWCA 1층으로 자리를 잡았고, 1978년 11월에는 11명의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광주양협의 창립은 1978년 11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 장두석은 1970년대 유신시대로 접어들면서 신협지도부 임원, 가톨릭농민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긴급조치 위반, 민청학련, 시국사건 등으로 감옥에 들어간 동지들에게 책을 넣어주는 운동과 더불어 농민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구금과 투옥의 길을 걸었다. 장두

년 3월 장두석은 서경원, 최성호와 함께 당시 농민회 교육국장이었던 이강을 도피시키기 위해 한센촌으로 내려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김명철 내과에 입원하게 된다. 그 병원으로 황일봉과 문병란 선생이 찾아 왔고, 그 자리에서 장두석은 황일봉에게 "원주, 서울, 대구 등과 협력해서 양서조합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장두석과 서경원(전 국회의원) 밑에서 황일봉은 앞서 설립된 소비자협동조합의 정관들을 배우고 수정 보완하여, 하나씩 정리해 갔다. 그리고 장두석의 집을 임시로 광주양협 공간으로 사용하며, 광주양협이 출발하게 된다.

1978년 6월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을 계기로 삼봉조합 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대학교수, 지역의 민주인사들이 대거 결합하며 광주양협의 YWCA 시대가 열렸다. YWCA 이애신 총무의 주선으로 1층 휴게실에 책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78년 11월 안진오(당시 전남대 해직)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구성하며 광주양협이 틀을 갖추어 갔다.[21] YWCA 1층 휴게실 공간을 빌려 쓰던 양협은 1979년 4월 YWCA 2층에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 민주화를 일궈내기 위한 공간으로 양협을 찾는 발걸음들이 점차 많아졌고,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초

석이 양서협동조합의 구상을 하게 된 것은 1977년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김승호, 김형기, 장상순 등과의 만남이 계기가 된 것이다. 국민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 일종의 소비자협동조합인 양서조합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차원의 양서조합 구상을 가지고 있던 장두석은 박현채와의 만남을 통해 양서협동조합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 시절 광화문 대포집에서 박현채, 전철환과 술을 나누면서 유신독재타도와 민주화, 통일운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선생 집에 가 하룻밤 묵은 적이 있는데, 당시 박현채 선생이 청년학도들에게 좋은 책을 보급해야 할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85-86).

21) 임원진은 부이사장 이일행(당시 법률사무소 재직), 이사 정규완(신부), 한모길(목사), 문병란(시인), 윤영규(광주여상고 교사), 박행삼, 박석무(대동고 교사), 이사 겸 집행위원장 장두석(신협 및 가톨릭농민회원), 감사 이성학(기독교 인권위원장), 임추섭(중앙여고 교사), 총무 황일봉, 간사 김현주 등이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87-89).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화된 사회운동세력을 결집하고, 재건하는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했다. 임원진은 아니었지만 이방기, 김정수, 송기숙 등 20명의 전남대 교수들, 권광식, 김제안 등 25명의 조선대 교수들이 참여하였고, 윤광장, 정해직, 김준태, 송문재, 오정우, 정규철 등 삼봉조합 교사들, 위인백(변호사 사무실 재직), 최병연(전남매일 기자) 등 많은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22)]

광주양협에는 광주지역 민주화 관련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관여하였지만, 특히 다른 지역의 양협과 비교해 볼 때 교사와 교수들이 양협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광주양협에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투옥된 경험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많이 관여하였다. 광주양협의 창립에 대해 윤광장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978년 6월 27일 '교육지표' 사건이 터진 이후 삼봉조합 선생님들과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는 목적으로 YWCA에 양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일종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양서조합을 자칭 광주의 사랑방이라고 불렀다. 우리 삼봉조합 선생님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이 양서조합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대학생들은 민청학련 관련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현대사회문제연구소'에서 관리를 맡았다(윤광장 1990; 차성환 2004, 166 참조).[23)]

---

22) 광주양협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인사들은 관광호텔에서 집기를 얻게 해 준 황석영(작가), 심상우(전남매일 사장), 정구선(삼부증권 사장), 박상구(삼양타이어), 대인시장 상인들, 조명제(신협도지부 회장), 전계량(계림신협 상무), 박남훈(북동신협 전무), 김춘동(북동신협 이사장), 김홍용(방림신협 상무), 서경자(남광신협 이사장), 정은수(광천신협 이사장), 김재균(홍민신협 이사), 양경자, 고정희, 정유아, 이윤정, 양현숙(YWCA 간사) 등이 있다(장두석·황일봉·김현주 2012).

광주양협은 창립과 함께 회원이 급속히 늘어갔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양협에 참여한 삼봉조합 교사들은 각 고등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도록 노력하였는데, 대동고등학교(윤광장, 박행삼, 박석무 재직), 전남고등학교(김준태 재직), 중앙여고(송문재, 임추섭 재직) 등의 학생이 활발히 참여하였다. 독서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양협에서 대여한 양서를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면서 의식의 지평을 넓혀 갔다(차성환 2004, 167). 특히 대동고등학교에서는 1980년 상반기 '독서회'가 자리 잡아 가면서 학내 민주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사례지오고, 중앙여고 등도 방학기간을 활용해 독서회 활동을 하였다(장두석·황일봉·김현주 2012, 3). 대동고 독서회를 주도한 학생들은 양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김향득, 김효석, 박병인 등이다. 당시 대동고 학생과장을 맡았던 박석무의 배려로 독서회의 서클 등록이 이루어졌고, 일부 사회과학 서적과 사회소설 등을 읽고 토론회도 자주 가졌다. 이 독서회원들은 5월 들어 대학가의 가두시위에 20~30명 이상의 학생들을 조직하여 참여하기도 하였고, 5월 16일 횃불시위에 70~80명의 학생들을 조직하여 참여하기도 했다(김향현 1990, 864-867).

광주양협에는 현직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 양협들과 달리 일반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처음부터 청소년,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의식화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차성환 2004, 167). 따라서 광주 양협 활동에 학교현장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의 열망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양협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의

---

23) 정확한 명칭은 '현대사회문제연구소'가 아니라 '현대문화연구소'이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24)]

교육운동의 암흑기 동안 학교현장에서 비공개 소모임 형태로 유지되거나, 개인적으로 울분을 삭히던 교사들의 민주화운동이 '삼봉조합'의 활동 등으로 서서히 조직적 양상으로 가시화되었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1970년대 후반 광주양협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광주·전남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이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활동영역의 확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연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광주양협은 유신 말기 합법적 공간이 지극히 좁아진 197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교두보였다. 광주양협은 각종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대학생들의 시국토론'을 여는 등 군부정권의 눈엣가시였다. 박철웅 측근들의 방해로 조선대가 학보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자 발행을 도와주기도 했고, 김재규의 최후진술 등 수많은 유인물이 양서조합을 통해 배포되었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93).

박석무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출판기념회를 열고, 문병란의 시집 『벼들의 속삭임』, 『호롱불의 역사』 등을 발간, 배포하기도 하였다(장두석·황일봉·김현주 2012, 4). 양서조합을 대표한 강연 중 노동자, 농민 강연은 문병란 선생이 주로 많이 했고, 박현채 선생을 비롯하여 각계 저명한 분들이 강연을 했는데, 당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양서조합의 강연회에 가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릴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우스갯소리로 강연이 있을 때는 교사, 교수들은 일명 간수(학생을 지키는 간수라 칭함) 역할을 자청하기도 했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4) "우리 교사들이 협조를 안 했으면 학생들이 오도 안 해", "우리 대동고등학생들이 주로 거기를 다녔어. 법대 졸업했던 유석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지금 뭐 여기 광주에서 있었던 전남 나온 김효석이라던가 모두 이런 친구들이 중심이 되서 양서조합에서 책을 보고 읽고 그랬다고 … 그 애들이 다 죽고, 5·18 때 죽고 감옥 가고 다 그랬어(박석무 구술 2013, 30)."

2011, 93).

YWCA 2층 양협 사무실에는 고교생, 대학생, 교사, 회사원,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모여들었고, 1,400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이 YWCA 건물에서 '엠네스티'와 '기독교인권위원회'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삼봉조합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이 단체들과 상당히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 교육운동의 암흑기에 비공개 소모임 형태로 유지되던 교사운동이 양협 활동을 계기로 사회운동과 결합한 새로운 실천양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다. 광주양협의 공식사업은 1980년 5월 17일 박현채 선생의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 강연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강연은 YWCA 1층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입추의 여지없이 시민, 학생들로 꽉꽉 들어찼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학교 측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모였다. 강연회를 무사히 마치고 자주 이용하는 식당으로 가서 뒤풀이를 하던 중 자정이 지날 무렵 라디오에서 '전국에 비상계엄령 확대 실시'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박현채 교수는 대뜸 "낌새가 이상하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 지내자"는 말과 함께 "문병란 선생을 잘 모시고 공부하라"고 황일봉에게 당부하면서 헤어졌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97). 그리고 5·18로 인하여 양협의 활동이 중단되고, 삼봉조합의 교사들, 독서회를 통해 양협활동을 하던 고교생들 다수가 5·18에 참여하여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삼봉조합과 양협의 교사, 학생들이 대거 5·18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 후, 당시 보안대에서 나온 이들이 장두석 선생의 집을 짓밟고 "빨갱이 장두석을 찾아내라"고 협박하며 을러대는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통에 부인이 뇌진탕으로 쓰러지고 아들은 연행되는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간사 김현주의 피해는 더 했다. 큰오빠 김상윤은 예비 검속되었고 제대한 지 1달도 안 되는 셋째오빠 김상집은 5월 항쟁 내내 녹두서점과 도청, 시내 곳곳에서 일을 했었기에 27일 새벽 도망갈 시간도 없이 녹두서점에서 큰올케 정현애, 올케 여동생 정현순 등 모두 4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뒤 김현주는 사무실이 궁금해 가보려고 했으나 항쟁 주력지로서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행당한 회원, 피신한 회원, 사망한 회원 등 회원 100%가 전부 '5·18 관련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99-101).

항쟁기간 내내 광주양협 사무실이 있던 YWCA 회관은 〈투사회보〉 등 시민측의 선전물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광주양협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대동고 3년생 김향현(개명 김향득)이 도청의 최후항전에 참여한 것을 인터뷰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나는 거기서 고등학생으로서는 접하기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 양서협동조합은 대학 운동권의 총집결지였다고 할 수 있고, 재야 운동권 인사들과 몇몇 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운영해 나간 것으로 안다 … 광주시내로 들어온 이래 집에 도착하기까지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무척 놀라운 것들 뿐이었다 … 다음 날(23일) 나는 양서조합 식구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볼 겸 YWCA로 나갔다. 2층 양서조합에 가보니 몇몇 어른들과 대학생 선배들이 먼저 나와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시민궐기대회를 준비하고, 다른 쪽에서는 시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있었다. 안부를 묻는 몇 마디가 끝나자 현주 누나가 나더러 할 일이 많으니 강당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신협에 근무하는 용준이 형과 송백회의 어떤 누나가 작성한 대자보를 들

고 나가 시내 곳곳의 담과 전봇대에 붙였다 … 26일 오후 다섯 시쯤 계엄군의 광주진압설이 점점 사실화되어 갔다. 우리들은 끝까지 광주를 지키자는 생각에 도청으로 가서 총기를 지급받고 사용방법을 교육받았다(김향현 1990, 864-873).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양협이 있던 YWCA 건물은 계엄군의 총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광주양협 조합원 박용준은 항전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하였다. 광주양협이 보관하던 서적들에는 진압군의 총탄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광주양협의 중심인물이었던 교사들과 학생들 다수가 검거되었다. 이후 광주양협은 강제로 폐쇄되어 버렸다. 막 꽃을 피우려고 멍울졌던 나무들이 5·18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뿌리 채 뽑혀 버렸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103). 그러나 양협회원들은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대동고의 김향현 등은 1980년 11월 '독서회' 재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조병현, 표정두, 김지호 등 2학년들은 퇴학을 당하였고, 3학년 김향현과 ㅇ덕준은 무기정학을 받기도 하였다(김향현 1990, 872-873).

5. 맺으며

흔히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단절의 시기', '암흑의 시기'로 다루어져 온 교육민주화운동의 급격한 위축기에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은 오히려 반유신 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교육민주화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겨울공화국」을 통해 유신의 동토를 깨고 나온 양성우 교사의 선구적 투쟁이 있었다. 1975년 겨울, 군부 쿠데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겨울공화국」의 발표는 유신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일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광주중앙여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양심 있는 교사들의 진정어린 호응을 받았다. 둘째, 1978년 전남대 교수 11명에 의해 촉발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의 절정기에 교육현장을 옥죄고 있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대정부 선전포고였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전격적으로 해외로 타전되었고, 광주·전남의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며 반유신투쟁을 고양시켰다.

이러한 반유신 투쟁의 영향을 받은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에는 의미 있는 조직적 결사와 실천적 양상이 나타났다. '삼봉조합'의 결성을 통한 교육민주화운동을 이끌어갈 주체들의 조직적 결사와 '양서협동조합'이라는 실천적 흐름이 그것이다. 그간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삼봉조합'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삼봉조합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그 활동에 대해 증언한 바 있었으며, 삼봉조합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구술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기존 자료와 새로운 구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삼봉조합'은 비록 느슨한 형태의 모임이었지만 인적 연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구성원들이 향후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전국교육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사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삼봉조합의 결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1979년 창립한 광주 '양서협동조합'이다. 특히 광주양협 활동은 교육민주화운동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광주양협에는 광주지역 재야인사들이 대부분 관여하였지만, 특히 다른 지역의 양협과 비

교해 볼 때, 교사와 교수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윤광장, 박석무, 박행삼, 송문재, 임추섭, 정해직, 문병란, 오정우, 김준태, 정규철 등이 양협에 관계한 교사들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삼봉조합'의 성원들이었다. 또한 양협은 교사들의 상층부 조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상당수 학생들과 '독서모임' 등의 형태로 밀접한 연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실천적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이 양협은 사회운동과도 밀접한 연계를 맺었는데, 1980년 5월 신군부의 무력진압에 항거했던 주요 전초기지 중 하나가 바로 양협이었다.

1970년대 후반 반유신 투쟁을 거치며 성장하고 있던 광주·전남의 교육민주운동 역량은 5·18로 인해 급격히 민주화투쟁의 반경을 확대하게 된다. 반유신 투쟁을 선도했던 교육민주화운동 역량이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실천적으로 성장했고, 이 역량이 1980년 5·18세대와 결합하며 대중적 교육민주화투쟁의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중반 광주·전남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선언'을 시발로 전교협 결성, 전교조 결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후반 축적된 교육민주화운동의 역량이 있었기에 1980년대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현준. 1998. "전교조 합법화 이번엔 돼야 한다." 『노동사회』(11월호). 60-67.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양서협동조합운동』. 대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4월 혁명 이후 민주화운동 사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파주: 돌베개.
성래운. 1985. 『분단시대의 민족교육』. 학민사.
신일섭. 2007.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기념비 제막식 보고서."
_____. 2006.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사 정리 및 관련자료." 노준현추모문집 발간위원회 엮음. 2006. 『남녘의 노둣돌 노준현』. 도서출판: 미디어민.
신중섭. 2008. "1978년 '교육지표사건'의 역사적 의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3호. 125-156쪽.
이영재. 2015.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연구: 교육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_____. 2011. 『자유·희망·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도서출판: 동연.
장두석·황일봉·김현주. 2012. "광주양서협동조합" 발표자료.
전교조. 2011. 『참교육 한길로1』. 법외노조 편. 참교육.
_____. 1990. 『한국교육운동백서』. 도서출판: 풀빛.
전교조·민교협·강사협 공편. 1989.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 도서출판: 풀빛.
차성환. 2004.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2." 『기억과 전망』 겨울호. 146-169쪽.
KNCC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구술자료〉

김동원 구술. "그때 이미 시내는 해방구가 되었어." 5·18기념재단. 2006.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
김향현. "YWCA 최후항전."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자료선집』. 도서출판 풀빛.

박석무 구술. 〈민주장정구술: 정치분야〉(2013.8.27).
박행삼 구술. 〈민주장정구술: 교육민주화〉(2014.10.24).
송기숙 구술. "민주화에 교수들도 큰 역할을 했지." 5·18기념재단. 2006.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
윤광장 구술. 2006. "그날은 새소리도 없을 정도로 조용해져버렸어." 5·18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
_____. 1990. "유신정권과 싸워오던 현직 교사의 오월."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선집』.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도서출판 풀빛.

『동아일보』.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영문초록

Reviewing the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in the Gwangju-Jonnnam Area During the Dark Ages

Focusing on the "Sambong" and "Cooperative Movement of a Good Book"

Yi, Young Jae
Hanyang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the Education Movement, the Yushin Regime Era in the 1970s is known as "the age of severance" and "the dark age." The teachers' union created with the energy of the April · 19 Revolution in 1960 was destroyed by the May · 16 coup, leading to a 20-year "dark age" in the history of the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lasting until the early 1980s, when the "Y Middle School Teacher Group" (1982) was created. Interestingly, the Educational Movement in the Gwangju-Jeonnam area of the Yushin Era was depicted as an activ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this Yushin Era. The poet Sung Woo Yang published his poem "Winter Republic"; after this, the "Declaration of Our Education Orientation" incident occurred, in which 11 professors from Chonnam University participated. These were active anti-Yushin movements that continuously affected the educational movement in the Gwangju-Jeonnam area in the late 1970s.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Sambong" and "cooperative movement of a good book" were systematically and actively created in the Gwangju-Jeonnam area at the time. The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in the Gwangju-Jeonnam area has never been organized systematically, so the context of the educational movement focusing on the “Sambong” and “cooperative movement of the good book” could not be sufficiently highlighted. This study seeks to demonstrate structural and active aspects of the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in the Gwangju-Jeonnam area in the late 1970s, which is included in the dark age and the “age of emptiness” in the educational movements; this study also seeks to focus again on the meaning of this movement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movement history.

■ **Key Words:** Declaration of Our Education Orientation, Democratization, Educational Movement, Sambong, Cooperative Movement of the Good Book

투고: 2015.9.30 심사: 2015.10.16 확정: 2015.11.9